

탄 트완 엥의 『저녁 안개 정원』에 나타난 사죄와 용서 (불)가능성*

문 영 희

단독 / 전남대학교

[Abstract]

본 논문은 탄 트완 엥의 『저녁 안개 정원』에서 나타난 용서와 사죄의 문제를 다룬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말라야 반도를 강제 점령한 일본군 수용소의 유일한 생존자 테오 윤 링의 기억을 넘나들면서 가해자와 희생자의 서사를 동시에 포섭한다. 본 논문은 현재 시점 노년의 은퇴한 판사 윤 링이 역사학자 요시카와 다쓰지와 대면한 사건에서 시작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용서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녀는 가해자가 사과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트라우마적 사건이 결코 복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죄하지 않는 가해자를 문제시하며 진정성 있는 사죄를 고대한다. 작가 탄의 서사는 가해자들이 희생자의식을 통해 민족주의를 선취하는 지점에서 이들의 사죄가 빈약하거나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소설 속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신들을 전쟁기계에 무고하게 연루된 희생자로 인식하며, 이들이 전유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는 일본의 국가적 기억의 허상을 탐색하게 해주고 역사적 트라우마에 성찰이 없는 면모를 보여주는 유용한 장치이다. 반면 윤 링은 수용소에서 경험한 가혹행위에 대한 트라우마보다,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의식과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49996).

트라우마적 수치로 더 고통받는다. 이러한 면에서 본 글은 윤 링의 수치를 프리모 레비의 회색지대를 경유하여 사유하고, 그 수치심이 도덕적으로 안락한 희생자의 지위에 머무는 대신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통해 도덕적 각성을 꾀하는 감정임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자크 데리다의 사유를 참조하여 윤 링의 용서 가능성과 그 의미를 성찰하고, 탄의 소설이 기존 기억과 트라우마 비평을 보완하는 미학적 실천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계승하는 미래세대에게 책임있는 기억윤리를 요청한다는 점을 밝힌다.

주제어: 『저녁 안개 정원』,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회색지대, 수치심, 사죄, 용서

1. 들어가며

1945년 뉘른베르크(Nürnberg)의 국제군사재판 이후 죄의 인정과 사죄, 그리고 용서는 현대사에서 공식적으로 담화와 논평의 주제가 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에서 시도된 화해를 위한 사죄와 용서는 해당 범죄행위가 법적 영역을 넘어서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 탐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제노사이드에서 행해진 폭력과 잔혹행위에 대한 처벌과 보상 등의 법적 정의 구현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범죄 행위에 윤리적 속죄가 요청되었고, 그에 따른 용서(불)가능성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촉발된 1세대 기억 연구는 가공할 규모의 학살이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Holocaust)의 희생자에 대한 학문적, 정치적, 윤리적 죄와 책임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쇼아(Shoa)의 엄청난 희생자 규모나 잔혹성은 기억과 트라우마 연구를 추동한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이 지점에서 강조되는 ‘범접할 수 없는’ 고통은 홀로코스트 예외주의(Holocaust exceptionalism)라는 배타성을 지닌다. 달리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기억들, 다른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기억되지 못했다

는 점이 지적되는 것이다. 물론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압제, 그리고 전쟁범죄 등의 중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과거사 정리 등의 문제를 다루어 온 반면, 말레이시아는 독립 국가로 서기까지 일본과 영국의 지배를 번갈아 받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에 대해 정치적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 특히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는 특정 민족끼리 친영과 친일로 반목하거나 규합하면서 오히려 역사 청산을 이루지 못한다. 이에 본 글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말레이시아(Malaysia)를 주목하면서 탄 트완 영(Tan Twan Eng)의 『저녁 안개 정원』(*The Garden of Evening Mists*)¹⁾을 사회와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작가 탄은 어린 시절부터 일제 강제 점령하 말레이 반도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고 이 시기에 대해 오랫동안 다각도의 사료 조사를 했으며, 이러한 특징은 그의 첫 소설 『비의 선물』(*The Gift of Rain*)과 다음 소설 『저녁 안개 정원』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잘 드러난다(Jaggi 3). 특히 작가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일본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매우 특이하게 관찰한다. 말레이시아는 일본 강제 점령이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1980년대 정부가 일본의 노동 문화 모방을 장려하는 동방정책(the Look East policy)을 도입한다(Jaggi 4). 말하자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편으로 전범국 일본이 자행한 극악한 폭력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합적인 심리는 작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소설 속 주인공 테오 윤 링(Theo Yun Ling)의 딜레마를 관통하기도 한다. 작가는 일제 강제 점령의 역사적 상흔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일본 문화와의 경계에서도 발견한다고 밝힌 바 있다(Jaggi 3). 이 딜레마를 놓치지 않는 독해는 정치와 미학, 혹은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 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기를 강요하는 기존의 비평을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불완전하거나 미완인 사회와 용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녁 안개 정원』이 말레이시아의 기억을 반영하는 만큼 시공간적 배경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현재의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세 개의 시간 층위를 넘나든다.

소설 시작에서 드러나는 현재 시점은 1990년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대법원 판사직을 갓 은퇴한 윤 링이 36년 만에 카메론(Cameron) 고원지대에 있는 일본식 정원 유기리(Yugiri)로 귀환한 시기이다. 윤 링은 기억뿐만 아니라 언어마저 점차 잃게 되는 “원발성 진행형 실어증”(primary progressive aphasia, 126)²⁾ 증상을 자각하고 유기리에 돌아온다. 그녀의 몸과 내면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말라야(Malaya)를 강제 점령한 때로 일본 정부와 반목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당시 혹독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윤 링과 언니 테오 윤 홍(Theo Yun Hong)은 일본군 수용소에 강제 징집되어, 탄광의 중노동과 위안부로 징용된다. 일제는 세계대전에서 패전의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전쟁 포로를 수용소에 들이고 폭파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그 이후 생존자 윤 링은 언니와 희생자들이 산채로 묻힌 수용소의 자리를 탐색한다. 마지막 세 번째 배경은, 윤 링이 나카무리 아리토모(Nakamura Aritomo)와 유기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전쟁 후 1960년대로, 일제 강점에서 다시 영국령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말레이 민족 해방군이 영국 식민 당국에 맞서 벌인 게릴라전이 수시로 발생한 말라야 비상사태를 다룬다. 이 같은 시공간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 소설은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 기억과 망각 등과 같은 기억문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경유한다.

따라서 기존 비평들은 대체로 『저녁 안개 정원』 속 역사적 트라우마와 포스트식민주체로서 주인공의 모습에 집중해 왔다. 그중 피오나 리(Fiona Lee), 데이비드 C. L. 임(David C. L. Lim), 안젤리아 푼(Angelia Poon) 그리고 반다나 삭세나(Vandana Saxena) 등의 아시아 비평가들은 편협한 포스트식민주의의 틀에서만 파악한다. 그렇다 보니 소설의 플롯에 해당되는 대목, 즉 주인공 윤 링이 일본인 남성 아리토모와 연인이 되고 훗날 용서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비판적일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시절의 윤 링이 전쟁 트라우마에 잠식당하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와 정의 실현을 위해 생애를 걸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가령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윤 링은 일본에 대한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일본군 전쟁 범죄자들을 찾아내거나 심판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녀의 행보는 수용소의 위치, 즉 언

니의 유해가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법정 서류와 공식 기록을 검토할 자격을 갖기 위해 연구원이 되는가 하면, 이들을 기소하고 판결하는 법적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검사, 판사로 복무한다. 심지어 9건의 일본군 전범 교수형을 직접 참관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결말 부분에서 윤 링이 일본군 기지와 희생자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듯한 획기적 전환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임은 일본 제국주의와 선 사상이 얹혀 있는 인물이 아리토모이고, 윤 링은 이 일본인이 주입한 선 이데올로기에 “호명”되어 군 수용소의 위치를 찾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고 해석한다(445). 다시 말하면 여주인공이 선불교 사상과 예술로 포장한 사악한 제국주의자 아리토모에게 포섭당해 친일로 전향한 것이 된다(D. Lim 445). 삭세나는 주인공 윤 링을 식민 지배의 과거를 노스탤지어로 승화 및 미화시키고 나아가 망각하려 한다고 본다(164). 마찬가지로 리 역시 탄의 텍스트가 여성에게 가해진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을 다루지만 결국 망각을 지지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결말로 끝나면서 비판한다(234). 폰은 탄의 서사가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기억하기보다 전쟁범죄와 폭력을 안개처럼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미화시켰고, 소설의 미학을 위해 역사와 정치를 희생하고 식민주의적 청산을 포기했다고 평가절하한다(200).³⁾

이와 반대로 일본 제국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비교적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서구 비평가들은 소설의 정원과 정원사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소설의 결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게일 핀чам(Gail Fincham)은 윤 링이 일본의 문화 예술을 통해 자연과 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생태적 관점으로 세계를 견지하고 나아가 미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본다. 그러나 정원이 소설 속 인물들을 연결하는 장소이자 헤테로피아(heteropia)로서 매우 중요한 장치이지만, 정원 가꾸기와 생태적 관점으로 희망적 전망을 제시하기는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다니엘 맥케이(Daniel McKay)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네덜란드 보어인(the Boer) 매그너스 프레토리우스(Magnus Pretorius)와 그의 조카 프레데릭 프레토리우스(Frederick Pretorius)가 등장인물로 구현된 것에 주목한다. 맥케이가 남아공의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저녁 안개 정원』을 조망하거나 남아공 출신 인물과 윤 링과의 관계에만 주목하고 있어

서 동아시아와 말레이 반도의 정치학을 포괄하기에는 미진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보어전쟁 생존자인 매그너스가 윤 링에게 복수보다 화해를 추구하도록 촉구한 역할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이후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추구했던 과도기적 정의의 모델을 미묘하게 연상시킨다는 지적 등은 수용할 만하다(McKay 54). 실제로 작은 탄이 남아공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작가 생활을 하고 있고, 남아공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사회에서 담론의 장에서 다루어진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소설에서 다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은, 기존 평자들이 과거의 기억과 트라우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포스트식민주의를 적용한 점이나 정원이라는 공간 서사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가가 탄이 구현한 사회와 용서의 의미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소설의 액자에 해당하는 현재의 사건은 아리토모의 우키요에(Ukiyo-e)를 찾아서 온 역사학자 요시카와 다쓰지(Yoshikawa Tatsuji)와 윤 링의 만남이 성사되고, 두 사람이 함께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인 아리토모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액자 안의 또 다른 플롯은 아리토모와 윤 링의 만남을 통해서 윤 링의 분노와 수치심의 비밀이 밝혀진다. 두 겹으로 중첩된 비밀이 펼쳐지면서 윤 링이 아리토모를 재발견하는 내면적 경험을 하고 인식적 전환을 하게 되는데, 기존 비평과 달리 본 논문은 이 전환을 ‘미래를 향한’ 용서 가능성이 잠재한 것으로 포착한다.

사회와 용서라는 주제를 주도하는 탄의 내러티브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포착가능한 가해자와 희생자를 구현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소설 속의 가해자에게 희생자의 면모가 있거나, 희생자에게 가해자의 특질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면모가 있는데, 바로 이 대목이 작품을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독해하기 어렵게 하지만 동시에 그 올바름에 대해 숙고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논문의 2장은 다쓰지의 사과를 경유하여 일본인의 전쟁 서사에 내재하는 희생자의식을 면밀히 분석한다. 가해자인 일본인이 선점한 희생자의식을 직시할 때 비로소 모호하게 재현된 가해자의 면모와 이들의 사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일본의 국가적 기억의 허상을 파악할 수 있다. 3장은 희생자이자 생존자인 윤 링이 동시에 부역자이자 가해자로 구현되는 지점에서 그녀를 프리모 레비

(Primo Levi)의 회색지대(the gray zone)를 통해 포섭하고, 결말의 용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사유를 참조하여 탐색할 것이다.

2. 가해자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와 사회

『저녁 안개 정원』의 말라야 반도에서 중국계 인물들이 일제 강점의 희생자가 된 것은 식민모국의 교체와 관련이 깊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말라야는 영국의 해협 식민지(Straits Settlements)에서 일본 제국 식민지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된다. 과거 영국령인 이 반도는 고무 농장과 주석 광산 경영을 위해 인도와 중국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 즉 디아스포라를 유입해 와서 이미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중 “(영국) 왕의 중국인”(202) “해협 중국인”(Straits Settlements)은 자녀들을 영국 학교에 보내거나 중국어가 아닌 영어만을 습득하도록 했는데(202), 영어 사용자는 고위공직을 차지하는 등의 사회적으로 특권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식민의 종식과 더불어 일본의 점령이 시작되자 말레이인들은 일본에 협조하고 해협 중국인들은 반대로 일제의 폭압과 학살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일본 정부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수용소에 강제로 차출되거나 죽임을 당했고 윤 링의 가족도 결코 이 비극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윤 홍과 윤 링 자매의 몸과 마음에 가해진 폭력은 가족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 자매의 아버지는 수용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그로 인해 윤 링은 보어 전쟁 트라우마를 경험한 매그너스의 공감 그리고 가해자 민족인 일본인 아리토모의 사랑을 통해 위로받는다. 매그너스는 보어 전쟁 당시 가족을 모두 잃었고, 영국군에 잡혀 포로 수용소에 구금되었으며 한쪽 눈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보어 전쟁의 희생자로서 오랫동안 영국인에 대한 증오를 품어왔던 만큼 그 분노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윤 링이 자기 파괴적 분노에 빠지지 않게 심리적으로 지지한다. 맥케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하며 “경쟁하는 희생자의식”(duelling victimhood)으로 반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

인다고 지적인 바 있다(53).

윤 링은 전쟁범죄를 파헤치고 처벌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세월이 흘러 노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이는 가해국 일본의 역사적 과오뿐만 아니라 사과 없음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수용소의 생존자 윤 링은 한편으로는 전범의 색출과 처벌을 실행하는 판사직에 복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 가해자 측의 사회를, 즉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설의 첫 문단에서부터 윤 링의 1인칭 내러티브는 사과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구름보다 높이 솟은 산꼭대기에 일왕의 정원사였던 사람이 살았다. 전쟁 전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나는 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해가 뜨는 나라인 고국을 떠나 말라야의 중앙고산지대로 왔다. 언니에게 처음 그 정원사에 대해 들었을 때가 내 나이 열일곱 살이었고, 그를 찾아 산으로 올라간 것은 10년쯤이 지나서였다. 그는 동족인 일본인들이 우리 자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빗줄기가 들이치던 아침에 처음 만났을 때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였다. 하긴 어떤 말이 내 고통을 달래고 언니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알았다.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9)

기존 비평은 주로 소설의 첫 문장 “구름보다 높이 솟은 산꼭대기에 일왕의 정원사였던 사람이 살았다”는 첫 문장에 주목하여, 고원지대에 대한 노스텔지아를 지적하거나 (Saxena 172), “경계에 있는 초문화 공간으로 의도적으로 구성한 묘사”(Poon 192)라고 비판한다. 소설 전체를 조망하자면 비록 중국인, 남아공에서 온 이민자, 일본인 등의 다양한 군상의 인물들이 카메론 고원지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갈등이나 분쟁 없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의 논점은 작가의 서사가 이 공간과 아리토모를 낭만화하여 일제 식민의 기억을 흐릿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비평가들은 정작 윤 링이 아리토모를 바라보는 관점, 즉 그를 수수께끼처럼 불가해한 사람으로 묘사한 점을 간과하고 이어지는 문장을 독해하지 않는다. 실은 윤 링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회상하면서 그가 사과하지 않

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그가 전쟁과 연루되지 않은 ‘높은 산 속에 사는 예술가’라고 여기면서도 가해국 민족 일본인으로서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그녀는 가해자의 사과가 과거를 복구하거나 만회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링은 ‘누군가’가 죄의 사함을 요청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텍스트 내에 작용하는 사건 없는 사건이며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윤 링과 다쓰지 교수의 만남은 희생자와 가해자가 만나는 장이자 가해자가 ‘일본인의 죄’를 사과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후에 만난 노년의 남녀는 한 때 일본인 가해자와 중국인 희생자였으며, 현재는 역사학자와 (은퇴한) 판사로 마주한다. 일본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왔던 윤 링이 다쓰지와 만남을 수락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아리토모의 예술에 대한 저서를 집필하고 있어서이다. 또한 그가 일본 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쟁범죄에 대한 논문과 저서를 통해 역사 왜곡에 맞서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24). 다쓰지는 아리토모의 우키요에와 정원, 그리고 행적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전쟁과 얽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에 의하면 평범한 [일본인] 이웃들이 노동 수용소에서 탈출한 전쟁 포로들을 포획하는 내기, 일명 “토끼 사냥”을 종종 하곤 했고, 당시 다쓰지 자신이 소년들이 포로를 때려죽이는 광경을 봤다는 것이다(186).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이어지자 다쓰지는 몸을 깊숙이 숙여 절을 하면서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사과하지만 윤 링은 “당신의 사과는 무의미합니다”라고 말하며 물러설 뿐이다(186).

저희는 조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대량 학살이나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 몰랐습니다. 살아있는 포로들에게 자행된 의학 실험에 대해, 군 위안소에서 일해야 했던 여인들에 대해 몰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야 그간 저희가 저지른 짓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범죄에 관심을 가진 게 그때입니다. 저희 세대의 모든 가족들을 짓누르는 침묵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186)

이 사과에 대해 푼은 작가 탄이 가해자 일본인들이 고통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친일적인 서사를 하고 나서 “마치 친일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예상한 듯”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쓰지로 하여금 (윤 링에게) 사과하게 한다”라고 평가한다(197). 그러나 기존 비평의 편협함을 굳이 짚어내지 않더라도 이 장면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일본인의 사과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쓰지는 대량 학살과 죽음의 수용소, 생체 실험, 위안부 등의 일본 제국 주도의 전쟁범죄와 잔혹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전혀 몰랐으니 무고하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책임은 부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연루가 된 집단적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살상을 토끼 사냥이라는 표현으로 축소한다. 특히 그의 사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일본인의 죄’, 즉 집단적 죄로 희석하거나 추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말하듯, 모든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들 모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Essays* 126). 다쓰지가 강조하는 ‘우리의’ 집단적 죄는 상부에서 하달한 명령에 의해 실행된 조직화 및 분화된 죄인데, 이 경우 하부에 종사한 개인의 죄의식과 연루의식은 축소된다. 그리고 행위자들이 추상화된 ‘우리 모두의 죄’로 숨어버릴 때, 그 범죄행위는 누구의 죄도 아닌 것이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휘발되고 만다.

소설 속 전직 군인, 전범 기업인의 가족, 그리고 부역자 등의 일본인 가해자들은 언뜻 보기에는 죄의식을 내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민족의 상실과 희생의 서사를 서술한다. 아리토모와 다쓰지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모호한 ‘집단적 죄’를 사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범죄와 거리를 두면서 무고한 희생자의 지위를 확보한다. 가해국의 일원인 그들이 ‘우리도 전쟁의 희생자’라는 희생자의식을 고취 시킬수록 전쟁 가해국 또는 전범국가라는 훼손된 이미지가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집단적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공유된 고통(shared suffering)은 공유의 기쁨(common joy)보다 사람들을 더 단합시키고, 국민적 기억을 위해서는 애도가 승리보다 낫다”(J. Lim 152 재인용)라는 에른스트 르낭(Ernst Renan)의 선언은 가해국

에도 예외가 아니다. 전후 일본은 민족주의의 회복과 국가적 기억 창출을 위해 일본을 전쟁 피해국으로 재구성하는데,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원폭을 경험한 나라라는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기억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다(J. Lim 152). 작가 탄은 사악한 가해자를 재현하여 도덕적 이분법을 추구하거나 ‘완전한’ 사과를 하는 가해자를 통한 화해 장면을 구현하는 대신, 희생자의식에 함몰된 채 추상화된 집단적 죄를 사과하는 개인들을 재현하는 것이다. 작가가 파헤치는 가해자의 내러티브는 이들의 사회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재의 핵심에 성찰을 포기하고 희생자 지위를 선취한 국가적 기억이 있음을 드러낸다.

나아가 작가는 전쟁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한, 따라서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해자들을 구현하고, 그들이 어떻게 전쟁범죄를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쓰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역사학자이지만 동시에 전쟁의 상실과 고통의 서사를 주조하는 일본인의 모습으로 재현되며, 이는 가해자 민족이 희생자의 지위를 쉽게 점유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푼은 “일본인 개개의 동정적인 초상화를 제공”(197)한다고 비판한다. 물론 이 일본인들의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쟁 범죄자들과 기업들을 애국주의의 희생자로 묘사한다고 오독할 수 있으나, 탄의 서사를 일본인의 전쟁범죄 인식과 사회에 초점을 맞추면 완전히 다르게 독해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가해자 민족과 그 후손들이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자의식을 전유한 사태를 반영한다. 특히 다쓰지는 전쟁을 둘러싼 가족의 몰락과 사랑의 상실을 자기 본위적으로 서술한다. 심지어 사죄하는 그의 서사 깊숙한 곳에는 ‘우리’도 시대의 희생자라는 식의 논조나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아가 숨어 있다. 이를테면 애국주의적 권고가 넘쳐났던 시절의 미디어가, 어린 청년들을 영웅적인 해군 조종사가 되기를 열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이다. 즉 무구한 청년들이 국가 차원의 애국 캠페인에 휩쓸려 군대에 자원했다가 가미카제(kamikaze)로 목숨을 희생당했다는 희생자의식을 토로한다. 아리토모에게도 가미카제에 대한 슬픔이 있는데, 그는 유성우를 볼 때면 가미카제 조종사를 자원한 어린 동생을 떠올리며 애상에 잠긴다. 아리토모는 다쓰지 모두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가미카제의 희

생에 대해서는 서글픔을 감추지 않는다. 이들은 이른바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를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인 “벚꽃”으로 묘사하며(224) 이들의 ‘공격 행위’를 일왕과 국가를 위한 신성한 희생이자 순교로 미화하는 등 희생자의식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이렇게 소설의 가해자 내러티브는 일관되게 전쟁에 연루된 책임이 있는 소년병 가미카제나 전범 기업인들의 사연을 포섭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를 위해 어린 목숨을 희생했다거나 무고하게 집단적 죄에 연루되었다는 식의 애환을 국가적 기억으로 구성하는 맥락과 상황을 서술한다. 통상적으로 희생자의식은 전쟁이나 제노사이드의 희생자 민족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기억 전쟁에서 재빨리 무고한 희생자의 지위를 선취한 바 있다. 일본인들은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자신들을 전쟁범죄의 공범이 아닌 체제의 무고한 희생자로 신화화하려는 “대중 기억”(the public memory)을 확립한다(J. Lim 153). 이와 같은 기억은 ‘연합군의 오리엔탈리즘’에 힘입은 것으로, 연합군 최고 사령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가 “일본인들은 개인적으로 전쟁에 총력을 다했으며 천황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 군 수뇌부들이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의[국민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국민들은 [전쟁이 야기한] 고통에 대해서 비난받아서는 안된다. 군부가 잘못된 세뇌를 실천해 온 것이다”라고 일본 국민의 국민성을 평가한 데서 기인한다”(J. Lim 153). 쉽게 말해 일본인은 주체성을 포기하고 권위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수동적인 동양인이라는 낮은 지위를 갖는 대신, 전쟁범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는 이 견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일반화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전쟁 과실과 죄의식에서 면제시킬 수 있는 희생자의식을 발굴해 낸 것이다(J. Lim 153). 예를 들면 다쓰지 교수의 아버지는 일본 최대 재벌 비행기 제작 회사의 기업주였지만, 전쟁 발발과 동시에 ‘본인의 의지가 상관없이’ 전범 기업주이자 가미카제 양산 기업주가 된 피해자가 된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행기를 만들었다”(230)는 죄책감으로 인해 아들 앞에서 할복하여 무사답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며, 다쓰지는 아버지의 승화된 죽음을 애도

하는 것이다. 일본인의 대중기억이 자살에 명예와 노스탤지아를 덧입힘으로써, 그들의 전쟁 서사는 ‘스스로’ 수치를 떨쳐 버릴 뿐 아니라 가해자의 위치에서 희생자의 위치로 승격된다. 그러나 일본인의 대중기억이 애도하는 대상이 결코 전쟁범죄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가문의 추락한 명예라는 점 또한 문제이다. 바로 위와 같이 상술한 것들은 그간의 많은 비평들이 탄이 촘촘하게 배치한 일본인들의 희생자의식과 그것을 관통한 아이러니를 읽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인의 슬픔에 동조한 서사라고 오독한 점이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할 때 비로소 다음 장에서 다루는 윤 링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서사가 옳otti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3. 회색지대의 성찰과 용서 (불)가능성

윤 링의 분노는 과거에 발생한 트라우마적 사건이 어떠한 징벌이나 배상으로도 결코 회복할 수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그럼에도 그녀가 전쟁범죄의 처벌에 집착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약한 위상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전쟁 희생자가 용서나 화해의 당사자로 담론의 장에 선 적이 없는데 일본 평화 협정의 부당한 항목이 실행된 것을 목도한다. 이는 전쟁의 승자인 연합군 측에서 “일본이 전쟁 중 유발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연합국이 인정한다는 것”으로, 희생자 본인이나 가족 누구도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사실이다(46). 말하자면 윤 링이 전쟁 희생자를 대리하거나 대변할 자격이 없는 전쟁의 승전국이 패전국의 배상금을 면제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윤 링은 이 사태를 연합군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 즉 용서한 것으로 간주한다. 데리다는 용서와 징벌의 상관관계를 타진함에 있어서 아렌트의 언급, “사람들에게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능력이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일을 단죄할 능력도 없으므로 징벌은 인간사 영역의 구조적 요소다”(Condition 241)를 인용한다(44). 또한 그는 특별사면과 처벌면제라는 용서권을 칸트(Emmanuel Kant)의 사유를

논하면서 “주권자 자신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한다고 말하면서 용서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 당사자들 사이의 대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44-45). 물론 동시에 이 대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유보하고 있는데(45), 왜냐하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제노사이드와 전쟁 등에서 이미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을 대신해 생존자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고, 해당 범죄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징벌 대상조차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희생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배제된 제3자의 면제권 행사에 대한 윤 링의 항의는 합당하며, 그녀가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은 모습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작가 탄은 가해자에게 선한 속성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희생자 윤 링을 모호한 회색지대에 놓이게 한다. 기존 비평은 그녀를 아리토모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를 내면화한 여성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자신을 무고한 희생자라 피력하지 않으며, 그녀의 서사는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인식하면서 오히려 매 순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였음을 서술한다. 윤 링은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과 매질,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더 좋은 음식과 약을 제공받기 위해 일본어를 배우고 장교 식당으로 들어간다. 통역을 맡은 그녀는 수용소 내에서 탈출을 도모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넘기는 등 배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윤 링은 감시병들의 가혹행위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 장교인 도미나가 노부루(Tomigana Noburu)와 친분을 이용하는데, 이는 언니에게 들은 일본 정원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가능했다. 일본 패전이 확실시되자 도미나가 윤 링을 수용소 밖으로 내보내고 이 장소를 폭발시켰기 때문에 그녀가 유일한 생존자가 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윤 링은 “수용소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고 작은 특권을 획득하여 보다 높은 생존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소수의 특권층”(레비 97)에 속한다. 아우슈비츠 생존자 레비는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진정한 증인은 모두 죽은 자들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회색지대의 부역자들”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97). 동시에 그는 수용소의 삶에서 “성인이나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에게서나 기대할 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비논리적”(55)이라 말한다. 레비는 일명 “화장터의 까마귀들”이라고 불리는 존더코만더(Sonderkommando)에 대한 판단마저

유보하고 연민과 준엄함을 가지고 성찰하기를 요청하면서 이들을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며 판단을 유보한다(68-69). 왜냐하면 레비의 회색지대는 “일체의 도덕과 윤리의 준거가 무너지는 구조적 상황”이자 “존엄이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일반적인 상식의 잣대로 결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유희석 361).

하지만 윤 링의 서사에서 유의하여 볼 점은 이것이 전지적 작가의 판단이 아니라 윤 링의 1인칭 관점 서술이라는 점이다. 정작 그녀는 과거의 행위를 극단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하지 않고, 희생자의식을 과잉맥락화(over-contextualization)⁴⁾하여 자기변호를 꾀하거나 희생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도덕적 안락함을 누리지 않는다. “제가 그녀(언니 윤 홍)에게서 뭐가,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훔치고 있다고 느꼈어요.”(148)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윤 링은 언니의 꿈을 훔쳐서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으로 고통받는다. 그녀가 느끼는 수치심은 레비가 『가라 앉은 자와 구조된 자』(*I Sommersi E I Salvati*)에서 “다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은 것일 수도, 그러니까 사실상 죽인 것일 수도 있다”(97)라고 언급한 고통스러운 자기 인식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레비는 “최악의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폭력자들, 무감각한 자들, ‘회색지대’의 협력자들, 스파이들이 살아남았다. [...] 최악의 사람들, 즉 적자들이 생존했다. 최고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 진짜 증인들은 우리 생존자가 아니다.”(97-99)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링이 언니에 대해 느끼는 죄의식을 느끼는 까닭은, 많은 여성 수용인 중에서 언니가 위안부로 차출되어 극한의 고초를 경험했던 반면, 윤 링 자신은 도미나가와의 친분으로 감시병들의 가혹행위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윤 링이 이 장교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일본 정원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언니에게 들은 지식 덕분이며, 이러한 사실은 윤 링이 그녀 대신에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을 심화시키며, 그런 이유로 윤 링은 언니가 동경한 정원을 반드시 구현하여 기념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만약 레비가 “수용소 안에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의 생태계”(유희석 361)의 위계를

설명하면서 회색지대의 부역자들과 연루된 자의 도덕적 책임을 ‘일부’ 경감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면, 윤 링이 진술하는 수치의 서사는 자신의 악행을 발굴하는 것에 가깝다. 이를테면 영국인 고무 농장주의 문신을 번역해서 그가 매질을 당하고 죽게 된 일, 탈출을 도모한 수용인들의 정보들을 일본군에게 넘긴 부역 행위들을 결코 망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윤 링에게는 수용소의 폭력만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행한 수치 경험 또한 “트라우마적 수치”(서길완 110)이다. 물론 윤 링이 처한 수용소의 극한의 상황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녀에게 남아있는 도덕적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그녀가 그 수치심을 인지하고 소환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은, 만약 그것을 레비의 수치심에 겹쳐 읽을 수 있다면, 자기 검열이자 성찰의 특징을 지닌다(서길완 102). 작가 탄이 일관되게 파고드는 윤 링의 감정은 자기 수치로 구성할 수 있는 도덕적 성격이고, 오히려 다쓰지와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타성에 젖은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등의 정당화 기제들에 대해 성찰케 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사과하지 않는 아리토모와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젖은 다쓰지의 사과를 상기하면, 그녀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이 두 사람의 일본인은 단순히 사과라는 주제어로만 얽히지는 않는다. 윤 링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사는 현재의 다쓰지와 대화를 통해 비밀에 싸인 일왕의 마지막 정원사이자 예술가인 아리토모의 실체에 다가간다. 더 명확히 말하면 노년의 윤 링은 다쓰지와 만남을 통해 아리토모의 예술작품, 즉 그녀의 등에 새겨진 호리모노(horimono)의 정체를 알게 된다. 이는 가해자 민족의 일원과 희생자 민족의 일원이 함께 키와 키 집을 맞추어 진실을 추구하는 상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소설은 윤 링이 아리토모라는 인물의 비밀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과하지 않다. 특히 아리토모가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느냐가 윤 링의 마지막 선택을 해석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소설 서두에서 윤 링에게 사과하는 사람은 다쓰지이지만, 최종적으로 윤 링이 놓아주거나 용서하려는 대상은 아리토모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기존 비평들은 아리토모를 제국주의적 악한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⁵⁾ 그러나 아리토모는 선과 악이 혼재한 복합적인 인물이다. 그는 일본군 수용

소 건설에 연루되었지만, 전쟁과 연루되었다는 죄의식으로 사회에 버금가는 행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아리토모는 말라야의 현지인들이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거나 버마(Burma)의 철도나 노동 수용소로 강제 징집되지 않게,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을 풀어주게 했을 뿐 아니라 비상사태의 카메론 고원지대를 게릴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쓴다. 그래서 윤 링은 아리토모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정의로운 일을 실행하는 도덕적인 인물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태도 변화 또한 그와 일본 제국을 구분하게 하기도 한다. 윤 링이 아리토모에게 일본군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일을 고백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일왕의 사진을 걸거나 인사하지 않는다. 물론 그의 변화는 전혀 해명되지 않지만, 이는 윤 링의 고백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아리토모의 속죄에 준하는 행위를 높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윤 링이 그를 일본 문화와 예술을 향유한 예술가로만 오인한 점도 간과될 수 없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멀찌감치 있었지. 모든[전쟁과 관련된] 불쾌한 일과 거리를 두고 지냈어. 오직 내 정원에만 신경썼지”(216)라는 아리토모의 말은 사실 전쟁과 연루된 그의 수치심을 예시하는 것인데, 그녀는 이 말을 그의 초월적인 면모로만 해석한다. 달리 생각해 보면 전범국 일본과 일본인을 증오했던 윤 링이 아리토모의 연인이 된 데에는, 윤 링이 그를 예술가나 철학자와 같은 사람이라 믿은 이유가 있다. 그런데 전시와 전후 아리토모의 행적을 추적해 온 다쓰지의 추정에 따르면, 아리토모가 “전쟁에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185), 즉 말라야의 첩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⁶⁾ 심지어 윤 링이 아리토모의 유작이자 사랑의 언어로 소중하게 여긴, 호리모노가 바로 일본군 수용소의 자리를 표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토모의 실체가 전쟁 스파이로, 그리고 그의 호리모노가 수용소의 지도로 드러난 것은, 윤 링이 지켜온 소중한 이상이 훼손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윤 링이 호리모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다쓰지의 추정에 의하면 유기리의 설계도와 호리모노의 비율을 맞춰보면 호리모노의 빈 공간은 수용소의 위치를 표시한 지점이다. 흡사 미완성처럼 보이게 하는 이 공백은 호리모노

가 갖는 특징으로, 윤 링의 이것을 어떻게 해독하고 행보를 이어갈지, 그리고 그 상황을 독자가 어떻게 해석할지가 소설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윤 링은 “호리모노는 내게 일어난 일의 일부예요. 그건 아리토모가 내가 준 거예요. 내게는 그것이 제대로 보존되게 할 의무가 있어요”(340)라는 입장을 관철해 왔고, 그런 이유로 다쓰지와의 만남을 수락한 것이다. 윤 링은 아리토모가 수용소에 관여되어 있고 호리모노가 수용소 지도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기는 했지만 고집스럽게 호리모노 보존을 포기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윤 링은 “정원은 계속 존재해야 해요 그러려면, 내 사후에 호리모노가 소멸되어야 해요”(348)라면서 이전의 입장에서 완전히 선회한다.

윤 링이 호리모노를 포기한다는 것은 미학적 가치를 갖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수용소로 가는 지도를 파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파격적이다. 그녀가 일생을 바쳐 일본 군 노동 수용소의 위치, 즉 희생자들이 묻혀있는 자리를 추적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 리는 “법적 정의를 구할 가능성을 포기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평가하고, 그녀의 침묵이 폭력의 역사를 암묵적으로 망각하도록 용인한다고 비판한다(235). 뿐 역시 윤 링이 수용소 탐색을 포기하는 것이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기보다 일본 정원을 사랑했던 기억의 표출이라고 비난한다(199). 반대로 주잉(Zhu Ying)은 “등에 새겨져 있는 역사의 흔적과 현재 진행 중인 과거의 기억 글쓰기를 통해 윤 링이 결국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며 미래의 치유를 향해 나아간다”(99)고 긍정적으로 의미부여를 시도한다. 앞선 두 비평이 수용소 찾기를 ‘포기’했다는 지적은 윤 링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호리모노와 윤 링의 글쓰기가 용서를 꾀한다는 해석도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결말의 의미를 성급하게 닫아버린다.

오히려 호리모노 파기는 수용소 찾기를 포기하는 수동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가는 지도를 파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윤 링은 호리모노 파괴와 유기리의 복원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 즉, 정원의 존재를 위해 반드시 ‘수용도 지도’를 없애야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그

녀는 호리모노를 보존하는 계획을 접는 것에 대해서는 윤 링이 모호하게 말하거나 오히려 독자를 혼란스럽게 할 만한 해명을 하기도 한다. 가령 그녀는 “언니가 묻힌 곳을 찾는다고 내 죄책감이 줄거나 일어난 일이 없던 일로 되지 않을 것이다”(342)라며 말한다. 그런데 만약 이 언급을 “호리모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342)라는 선언과 함께 읽으면, 그녀가 이 장소를 찾지 않아야 할 확고한 동인이 발견된다. 수용소의 지리적 위치는 일본 제국 노동 수용소이자 전쟁 약탈물을 은닉한 장소로, 오랜 세월 “보물 사냥꾼들”(317)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축수를 세우고 있는 곳이다. 즉 그녀가 이 장소를 발굴하기 위해 호리모노를 공개할 경우 그 지도의 의미가 군 수용소의 자리가 아니라 보물 지도로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안부 윤 홍을 추념하고 전쟁범죄를 성찰하는 기억의 장소에 마땅히 기울여져야 할 사회적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윤 링은 수용소의 물리적 장소 자체를 발굴하는 대신에 미학적인 기념관으로서 기억의 장소를 재구성하여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미래의 기억’을 탐색하려 하는 것이다.

윤 링이 기획하는 기억의 장소는 미완으로 남겨둔 용서의 가능성과 기억의 책무를 다음 세대에게 이양하고 계승하게 하는 공간이다. 과거 아리토모는 유기리를 “영원히 사적인 공간이 될 것”(210)고 말했지만, 윤 링은 “대중에게 개방할 것이다”(347)라고 다짐하며 그의 의도에 반하는 공간으로 기획한다.

정원을 복원한다는 내 결정은 옳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기도 하다. 반드시 유기리를 보존할 것이다. 내 언니를 위해서 정원이 준비되면 대중에게 개방할 것이다. 다쓰지에게 아리토모의 우키요예를 유기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 작품들을 이곳에 영구 전시할 것이다. 안채 역시 보수해야겠지. 또 비말야에게 지시할 일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야 한다. . . . 그녀는 그런 식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내가 점점 윤 홍을 잊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을 테니까. (347)

유기리 복원은 기념의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누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

제를 다시 상기시킨다. 그녀는 이 장소가 일본군 위안부 윤 홍의 삶을 추모하는 장소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아리토모의 작품을 유기리에 전시할 것이라 천명하는데,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최근 일본에서 일왕의 마지막 정원사이자 우키요에 예술가인 아리토모에 대한 흥미를 느낀 세계 각국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그가 심취한 선불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국가의 승려들이 고산 지대로 몰려와 있다(181). 즉 아리토모의 예술 작품을 아카이브로 삼은 추념의 공간은 그의 정원과 예술 세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많은 일본인들의 방문을 잠재하는 것이다. 유기리를 기념관으로 조성하여 기억의 장소로 개방하겠다는 윤 링의 계획은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경계를 넘어 전쟁범죄에 대해 성찰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공간으로, 나아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속죄하고 용서하는 곳이자 미래를 향해 열린 기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윤 링이 추모의 장소를 기획하는 것과 별개로 용서의 문제는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있다. 특히 전쟁의 희생자들이 경험한 전쟁범죄에 한한 그 죄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호할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도 없으므로, 용서 가능성은 영구 유예된다. 데리다는 용서라는 주제를 논하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장켈레비치(Vladimir Jankélévitch)의 “용서는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서 죽었다”(31)라는 말을 인용한다. 장켈레비치에 의하면 전쟁범죄와 학살과 같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어떤 처벌과 단죄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과거는 환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생자들이 더욱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리다는 장켈레비치의 증언을 들어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사유하는데, 이는 용서의 역사가 끝났다고 결론짓는 지점에 용서의 가능성이 놓여있었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이다(35). 데리다는 “형식적으로 비어있고 말라 있지만 집요하게 까다로워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포리아,” 즉, 용서할 수 없는 것과 속죄할 수 없는 것을 재차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이어서 데리다는, 장켈레비치의 용서 불가능성 선언을 엄중하게 수용하면서 동시에 “[장켈레비치가] 그에게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애도하는 일로서 기억하는 일, 즉 용서는 미래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점

을 중요하게 거론한다(68). 장켈레비치와 마찬가지로 윤 링이 아리토모나 다쓰지를 또는 단죄할 수 없는 ‘그들 모두’를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녀가 유기리라는 기억의 장소를 세우는 것은 속죄와 용서가 현재에는 결코 불가능한 것임을 예시하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이 미래에 열려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기 때문이다.

작가 탄의 서사는 동화 속 결말처럼 윤 링의 용서를 ‘완전하게’ 묘사하거나 도덕적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재현하지 않고 미완으로 남긴다. 윤 링은 아리토모의 진실을 탐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수치와 분노 그리고 복수심 등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것이 용서와 같이 도덕적으로 고양된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놓아주기로 한 그녀의 선택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영향받은 것이다. 우선 전쟁 희생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으로 연결된 매그너스와의 연대감이다. 윤 링은 매그너스의 “증오를 놓아버려”(52)라는 충고를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우는 매그너스의 부인 에밀리(Emily Pretorious)에게서 용서의 그림자를 본 것이다. 비상사태 시절 공산 게릴라가 마주바 하우스에 침입하여 일제의 금광 소재를 추궁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한 아리토모로 인해 매그너스가 살해당하자, 에밀리는 아리토모에 대한 원망을 오랫동안 품게 된다. 아리토모는 사죄의 말을 대신하여 매그너스의 장례식에 에밀리에게 종이 등을 만들어 왔고, 사람들은 불 밝힌 종이 등을 밤하늘에 날려 보내면서 매그너스의 장례식을 치른다. 약 40년이 지난 후 마주바 하우스에서 윤 링은 매그너스의 묘 옆에 있는 아리토모의 가묘를 발견한다. 이 가묘는 에밀리가 세운 것으로 세월이 흘러 그녀가 아리토모를 용서한 것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에밀리가 윤 링에게 아리토모의 등을 건네는데, 이는 윤 링에게 분노 내려놓기를 또는 용서하기를 제안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윤 링이 등을 날리는 모습이 용서와 내면의 평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 안의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어요. 윤 홍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산 채로 묻어 있

죠”(282)라고 말하는 윤 링의 치명적인 상흔은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킨다. 탄의 서사는 윤 링의 마지막 모습을 자기 치유로 완성하거나 가해자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재현하지 않고, 오히려 미완성의 결말로 처연하고도 쓸쓸하게 포착함으로써 (무)조건적 용서와 가능성에 대한 사유를 끌어낸다.

4. 나오며

홀로코스트 예외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기억이 서로 참조하고 경합하면서 이들이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로 경쟁하는 기현상이 생겨났다. 전쟁의 기억은 ‘우리의’ 기억을 더 고통스럽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신성화하거나 그것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해자인 적의 비인간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를 희생자의 자리에 고착시키고, 반대편에 대한 용서의 권력을 쥐게 되면서 오히려 화해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데리다는 환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조한다. 따라서 화해라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사명을 위해 시행되는 정치권력이 개입된 용서에 대해서는 언제가 심도 있는 숙고가 요청된다. 사죄와 용서는 가해자와 희생자의 대면을 필수 전제로 하거나 어떠한 제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반드시 희생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데리다의 용서 불가능한 것을 용서하라는 선언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조건적인 용서 사이를 연결하고 고민하는 윤리의식의 요청이다. 즉 죄의 사함을 요청하는 사죄와 배상, 처벌 등이 조건적 용서의 범주 안에 있다면, 무조건적인 용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고려해야 할 무엇인데, 이 조건과 무조건은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숙고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 말레이시아의 전쟁 기억을 다루는 『저녁 안개 정원』은 가해자와 희생자 모두를 모호한 지위에 둔다. 작가 탄은 기존 통념과 달리 가해자를 희생자의식 민

족주의로, 희생자를 수치심으로 포섭하여 사죄와 용서의 문제를 짊어낸다. 다쓰지의 사죄는 희생자의식이 민족주의로 확장되었을 때 해당 집단이 도덕적 안위를 얻을 수 있지만 결코 희생자의 공감을 얻는 용서는 청할 수 없는 점을 상기시킨다. 반면 윤 링은 남아공 보어 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고통을,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상실을 견주거나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각기 다른 기억들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인식할 뿐 아니라 타인들과 공감과 연대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발현시킨다. 물론 그녀가 마침내 시도하는 용서는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지만 그 가능성은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미래를 향한 기억을 열어둔다. 정원 유기리는 복원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특히 윤 링과 마찬가지로 인종과 영토가 일치하지 않은 중국계 인도인 비말야 친(Vimalya Chin)에게 그 작업이 계승된다는 측면에서도 상징적이다. 유기리라는 추모의 자리는 가해자 민족 아리토모의 예술작품, 희생자 윤 홍의 그림, 그리고 윤 링의 수기 등의 아카이브로 채워질 것이다. 즉 이 장소는 가해자와 희생자의 기억과 예술이 혼재된 공간으로, 도래하는 미래의 많은 사람들의 방문과 성찰을 잠재한다. 나아가 윤 링이 시도하지 못한 시도, 그리고 다쓰지의 닿지 못한 사과와 말하지 못한 아리토모의 사죄 역시 미래 세대의 과제로 남겨진다. 윤 링이 복원하는 기억의 장소는 용서의 불가능성을 설교하면서 동시에 가능성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하게 한다. 『저녁 안개 정원』은 기존 기억과 트라우마 비평을 보완하고자 하는 미학적 실천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계승하는 미래 세대에게 책임 있는 기억 윤리를 요청한다.

Notes

- 1) 『저녁 안개 정원』은 2012년 부커상(the Booker Prize)후보작에 오르고, 2013년 맨 아시아 문학상(the Man Asian Literary Prize), 같은 해 월터 스코트 역사 소설상(the Walter Scott Prize for Historical Fiction)을 수상하고, 2014년에 국제 더블린 문학상(International IMPAC Dublin Literary Award)의 최종 후보작 중 하나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문학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 2) 앞으로 『저녁 안개 정원』의 표기는 괄호 안에 쪽수를 적는다.
- 3) 『저녁 안개 정원』을 기억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 있기는 하다. 주 잉(Zhu Ying)은 리피르(Paul Ricour)의 이론적 틀을 윤 링의 기억과 망각에 피상적으로 적용하여 윤 링이

글쓰기를 통해 용서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한 것으로 본다(99). 그러나 그녀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같은 감정은 단순히 이야기하거나 글쓰기를 하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사실 윤 링의 수기(memoir) 쓰기는 기억이 휘발되어가는 병세의 악화로 인해 긴급하게 기록해야 하는 압박한 의무에 추동된 것으로, 이것은 재판의 판결문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 기리와 함께 남겨질 기록을 위한 것이다(309). 다시 말해 윤 링의 글쓰기는 유 기리 재구성 과 대중 공개와 맞물려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 기존 트라우마 담론에서 글쓰기와 예술활동이 치유를 담보로 하는 것처럼 재현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그런 면에서 탄의 내러티브는 기억 문학에 비판적인 자기 반영적인 요소를 갖기도 한다. 텍스트 속 윤 링은 글쓰기, 자기 고백적 스토리텔링, 정원 가꾸기의 예술활동, 궁도 등의 다양한 활동 들을 하지만, 어떤 것도 획기적으로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는다.

4) 희생자 민족주의는 가해국과 피해국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고, 양국가의 민족주의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경쟁한다. 가해국에서는 과거의 과오와 죄를 희석시키기 위해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를 강조하는 탈맥락화된 희생자의식을, 피해국은 “도덕적으로 안락한 지위”를 점하게 하는 과잉맥락화된 희생자의식을 갖는다(J. Lim 141).

5) 가령 아리토모가 윤 링에게 정원석을 옮기게 하는 것이나 그녀의 등에 호리모노를 새기는 것이 수용소의 강제노동과 가혹행위를 상기시킨다면 “가해자와 비슷한 존재”(quasi-perpetrator)라고 언급한 비평도 있다(Zhu 102). 또 다른 비평은 윤 링이 아리토모의 연인이 되고 호리모노를 새긴 것을, 포스트식민 주제 상설의 증거로, 또는 스스로를 “미학적이고 에로틱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Poon 198). 또한 짧은 젊은 시절의 윤 링이 확고한 자아의식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노년에는 그러한 저항 의식을 상실했다고 보고, 이 소설이 “반페미니즘적 지향”을 갖는다고 호도한다(Poon 198). 또 다른 비평은 아리토모가 “독특한 취향과 자연과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심오한 정신을 가진 교양 있는 감식가”이지만 예술가적인 취향과 선불교 사상을 이용하여 윤 링을 유혹하고 그녀에게 제국주의를 내면시킨다고 비판한다(D. Lim 441). 이 비평가들은 아리토모와 윤 링이 쌓아 올린 섬세한 사랑의 감정이나 관계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가해 민족과 피해 민족 또는 식민과 피식민의 구분으로만 판단한다.

6) 일본 제국 사령부는 전쟁 약탈품을 은닉하기 위해 골든 릴리(Golden Lili) 작전을 구상하는데, 이 작전은 전쟁 포로들을 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강제로 노역시켜 그들이 터널을 만들면 그 내부를 “보물”로 채우고 터널 입구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강제 노역한 전쟁 포로들은 산 채로 매장되거나 집단적으로 살해당해서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었다. 다쓰지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이 작전에 투입된 엔지니어는 조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 보물을 숨긴 장소를 은폐할 수 있도록 빨리 자라는 나무와 관목을 심고 시골 풍경과 잘 어울리도록 처리했다는 것이다(317). 이같은 설명을 들은 윤 링은 아리토모가 말라야에서 엔지니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인 용 문 헌

- 데리다, 자크. 『용서하다』. 배지선 옮김, 이숲, 2008.
- 레비, 프리모.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옮김. 돌베개, 2014.
- 서길완. 「수치심의 인지와 진정한 수용방편 모색 :프리모 레비의 증언집을 중심으로」. 『영미문학 연구』, 39호, 2020, 101-24쪽.
- 유희석. 「프리모 레비와 한나 아렌트 —회색지대’와 ‘악의 상투성에 관하여」. 『인문논총』, 77권 1호, 2020, 357-96쪽.
- Arendt, Hannah. *Critical Essays*. State U of New York P, 1994.
- _____. *The Human Condition*. U of Chicago P, 1958.
- Fincham, Gail. “Ecology, Ethics, and the Future: Tan Twan Eng’s *The Garden of Evening Mists*.” *English Academy Review*, vol. 41, no. 2, 2014, pp. 125-37.
- Jaggi, Maya. “Tan Twan Eng in Conversation.” *Wasafiri*, vol. 29, no. 1, 2014, pp. 3-7.
- Lee, Fiona. “Han Chinese Racism and Malaysian Contexts: Cosmopolitan Racial Formations in Tan Twan Eng’s *The Garden of Evening Mists*.”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 20, no. 2, 2019, pp. 220-37.
- Lim, David C. L. “The Zen of Japanese Imperialism in Tan Twan Eng’s *The Garden of Evening Mists*.” *Critique*, vol. 56, no. 4, 2015, pp. 435-48.
- Lim, Jie-Hyun. “Victimhood Nationalism in Contested Memories: National Mourning and Global Accountability.” *Memory in a Global Age*, edited by Aleida Assmann and Sebastian Conrad, Palgrave Macmillan, 2010.
- McKay, Daniel. “Don’t Hate the British: Old Boer Wisdom in Tan Twan Eng’s *The Garden of Evening Mists*.” *Wasafiri*, vol. 30, no. 3, 2015, pp. 50-65.
- Poon, Angelia. “Transcultural Aesthetics and Postcolonial Memory: the Practices and Politics of Remembering in Tan Twan Eng’s *The Garden of Evening Mists*.”

The Cambridge Journal of Postcolonial Literary Inquiry, vol. 3, no. 2, 2016, pp. 185-201.

Saxena, Vandana. “ ‘Die While I Can Still Remember Who I am?’: Postcolonial Nostalgia and Trauma in Tan Twan Eng’s *The Garden of Evening Mists*.” *Journal of Commonwealth and Postcolonial Studies*, vol. 7, no. 2, 2019, pp. 162-77.

Twan Eng, Tan. *The Garden of Evening Mists*. Cannongate Books, 2013.

Ying, Zhu. “Forgiving but Not Forgetting in *The Garden of Evening Mists*.” *Memory, Trauma, Asia*, edited by Rahul K. Gairola and Sharanya Jayawickrama, Routledge, 2021.

Abstract

The Apology and the (Im)Possibility of Forgiveness in Tan Twan Eng's *The Garden of Evening Mists*

Younghee M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quires into the apology and the (im)possibility of forgiveness in Tan Twan Eng's *The Garden of Evening Mists*. The novel recounts the memories of the sole survivor of an internment camp, Theo Yun Ling, who returns to the highlands of present-day Malaysia, and creates a memorial for her sister, who was buried alive as a comfort woman in the camp. Yun Ling, now an elderly retired judge, confronts Japanese historian Yoshikawa Tatsuji. Although Yun Ling recognizes that the traumatic events of the past are irreparable, she has nevertheless been waiting for an apology from the perpetrators. Most of these perpetrators, however, are not portrayed as inhuman villains; but as victims caught up in the machine of war. Victimhood, appropriated by the perpetrators, serves as a useful tool for exploring the illusion of Japanese national memory and the rationale for denying victims an apology. However Yun Ling's recollections cast her as an accomplice to the Japanese military. At this point, Yun Ling's shame is captured through Primo Levi's 'grey zone,' confirming that the emotion of shame is a continual process of self-censorship aimed at moral awakening. This paper concludes with a reference to Derrida's thoughts on forgiveness, calling for memory toward the future and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remembering.

Keywords: *The Garden of Evening Mists*, victimhood nationalism, gray zone, shame, apology, forgiveness

논문접수일: 2025.1.15

심사완료일: 2025.1.30

게재확정일: 2025.2.08

이름: 문영희

소속: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강사

이메일: anais0202@nate.com